

『○원 솔지에서 봄이 온다』라고
설명해주시면서요. 말씀해주시면서
제가 놀고 있었던 학교 수영장은
설정 부록과 함께 드리겠습니다.
없으셨거나, 재미있으셨습니다.

金光璣
로 이들을
領을 갖기
마련하니
 산수를 살피
안현선생이
그의 沈默
열심으로
咸이란 일
있다고 보는
領처럼 英雄
그런 손
領에서 赤手
파와의 싸

유학을 간
와보니 사
자금。
승진은
여기 와 계시
며 집에서 7
달도 살았었
던 그였다.
시작했다.

이루어 봄
여름에
여름에

威 洪 구 친 집 다 고 때 인 있

『中華書局影印本』

「夢陽」李顯
이 가로 韓南省
9월
설명증
에서
있었지
왔다.
살았다.

『沿岸
『張澤
『2면체
·바로

나니
나니

悲運의 두사람

다같이 共產主義者들에 被殺

北傀의 金日成은 가짜 : 진짜 金日成은 日陸士나와
한때 우리집 穩身 : 靑山里서 日軍大破한 金佐鎮

『…………』
『…………』
『…………』

卷之三

호치영
—55—



…… 訓驗室의 말한 電解

가드처럼
한국에
온다.
그만
있단다.

에서
본래
本來

술집
장학을
제해주
는 그들
의 활동
로 기록
하고자
합니다.

전설적 항일무장 독립운동 김경천선생 후손들 한국에

중앙亞거주 확인 건국50돌 맞아 정부초청

전설적인 항일무장 독립운동가
김경천(金擊天·본명 김광서·金光
瑞)선생의 후손들이 중앙아시아
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
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13일 일
시 귀국한다.

「백마를 탄 김일성」등 전설적인
영웅으로만 알려졌던 김선생은 95
년 정부 포상대상에 올랐으나 후
손들의 생존과 그후의 활동이 알
려지지 않아 포상을 받지 못했다.

그러나 지난 3월 모스크바에 교
육파견인 감사원의 정창영(鄭
昌永)감사관이 모스크바대학 교
수로 근무중인 선생의 막내아들
기범(67·러시아 노브고로드 거주)
씨의 사위를 만나면서 선생의 업
적이 사실로 확인돼 이번에 건국
훈장을 추서키로 했다.

일본 육사 기병과 출신인 그는
3·1운동 직후인 1919년 만주로 망
명한 뒤 한·리연합부대가 일본군
을 섬멸한 니콜라예프스키항 사건
을 계기로 일본군이 러시아 백군
(白軍)과 마적떼를 앞세워 대대적
인 보복에 나서자 본격적인 항일
독립운동을 전개했다.

그는 시베리아 투쟁 당시 백마
를 타고 「김경천 기병부대」를 지
휘하면서 설원을 누볐고 국내 사
학계에서는 한때 「원조 김일성」으



1930년 러시아에서 활영한
김경천장군의 사진이 처음
으로 공개됐다.

로 알려지기도 했다.

그는 1922년 독립운동단체들로
구성된 고려혁명군의 동부지역
령관을 지내다 일본군이 같은해
10월 시베리아 지역에서 철수하자
그때까지 혁명운동을 함께 하던
러시아 적군(赤軍)에 의해 무장해
제를 요구당했다.

김선생은 1937년 카자흐스탄으
로 강제이주 당한 뒤 1939년 「인민
의 적」이라는 혐의로 체포돼 유죄
판결을 받고 복역하던 중 1942년
소련의 북동쪽의 한 유배지에서
심장질환으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
한 것으로 알려졌다. 김선생은 그
러나 스탈린 사망후인 59년 2월 16
일 사후복권됐다. /김경철기자